



정교회주보

제2527호

2025년 6월 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7주일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유스티노 철학자 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2,3 응송 사도경 78~80
- 승천 찬양송 257
- 승천 입당송 257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성 교부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승천 시기송 257
- 사도경 : 사행 20,16~18; 28~36; 260
- 복음경 : 요한 17,1~13 105
- 승천축일 성모송 259
- 승천축일 영성체성혈송 25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찬양송'

사진 설명

성상대

성상대(이코노스타시스)는 정교회 성당에서 성소와 본당을 구분하는 구조물이다.

교회 초기에는 대리석이나 나무로 된 단순한 낮은 칸막이에 커튼이 걸려 있었으며, 제단 높이 정도의 기둥에는 작은 성상을 부착하였다.

나중에 큰 성상이 추가되어 성상대가 두 배로 높아졌다. 또한 성상대의 최상단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열두 축일의 성상이 위치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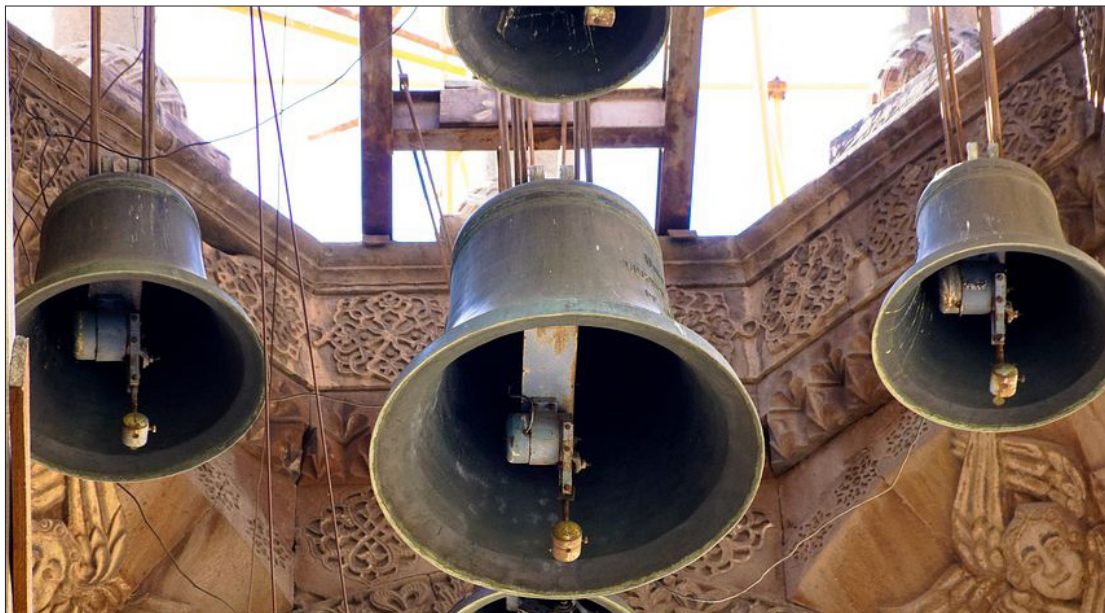
성소와 본당 사이의 소통은 세 개의 문, 즉 성직자만 출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중앙)과 북문과 남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의 비잔틴 박물관에 소장된 비잔틴 시대의 성상대이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성상대를 추가로 설명합니다)

영원한 삶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 본질을 꿰뚫는 진리이다.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은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정말 하느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디지털 세상에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공허함을 느낀다.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그렇다면, 참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 진리는 기술이나 인간의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와 침묵, 묵상과 내적 고요함의 삶을 통해 열린다.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우리 내면 깊은 곳, 고요한 마음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자. 그 음성만이 참된 진리, 참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나무에 관하여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정원을 걷다 보면 우리는 나무가 오로지 아름다운 향내나 맛이 있는가에 의해서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봅시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고, 평화롭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편 정원에 있는 많은 나무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보기 좋은 열매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맛보았을 때, 그 열매가 아무런 좋은 맛도 없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친절하게 보이고, 말도 그럴듯하게 잘하고, 조용하고 다소곳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우리는 그들의 열매가 쓰디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미움과 악의(惡意), 시기심, 무자비함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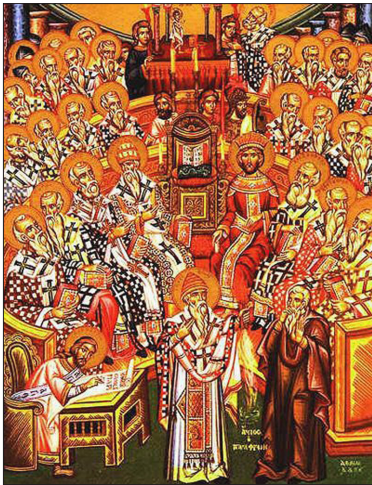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루가 6,43-44) 여기서 금식과 기도 자체가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 요란한 팽과리’(1고린토 13,1)처럼 공허함만 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위선과 거짓, 속임수만 있습니다. 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공허한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냥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말과 함께 뒤따르는 행동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바깥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있을 때, 선한 의지는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루가 6,45)

주간 예배 안내

* 6월 7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영성의 샘터

충만한 영혼

수도자들이 영적 말씀을 들으려고 사부 주위에 모여 들었다.

“왜 영혼은 하느님의 약속에 이끌리기보다 세상의 속임수에 더 쉽게 휩쓸리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세, 믿음을 통해 영혼이 천상의 것을 맛본다면 세상의 헛된 것에 휩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알림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안식 3주기 철야 예배 및 추도식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3주기를 맞아 가평 수도원에서 6월 13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만과, 조과, 성찬예배) 및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참례하실 분들은 6월 8일까지 각 지역 성당으로 신청해주시면 여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5월 21일(수), 성찬예배 중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대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세례 성사를 통해 양형민 아킬라스 예비신자가, 24일(토) 성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세례 성사를 통해 이안나 유아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인천 결혼 성사

지난 5월 24일(토),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결혼 성사를 통해 엠마누엘 엠파스 & 김형주 멜라니아 교우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부활절 기간 종료

지난 수요일(28일)로 40일간의 부활절 기간이 끝나고, 목요일(29일)에는 주님의 승천 축일을 맞아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부활절 기간 종료 저녁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합당하게 경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5월 22일 안식하신 서울 성당의 이소현 마리아 교우(김미순 크리스티나 교우 모친)의 장례식이 24일 용미리 교회 묘지의 부활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해주시고 가족에게 위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 서울 성당 - 산불 피해자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서울 성당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